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5년 11월

선교편지 제 83 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이곳의 날씨, 문화, 언어, 풍습등에 점점 더 익숙해 지면서, 현지인들과 더불어 사는데 큰 불편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도 당연하게 느껴져서, 도리어 비가 내리는 서늘한 날에는 현지인과 마찬가지로 추위를 느끼며, 뜨거운 태양을 기다리기까지 합니다. 그렇게도 어색하고, 이상했던 이곳의 관습, 문화등도 더 이상 혼란의 대상이 아니고, 이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무래도 선교사 체질인가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극복되지 않은 한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다름 아닌 현지 '음식'입니다. 물론 이곳 도심지의 좋은 식당이나 호텔에 가서 미국이나 한국에서 익숙했던 비싼 음식을 골라서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평범하게 먹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지 음식들을 먹어야 할 때면 아직까지 갈등 속에 많은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이곳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 중에 '레촌 바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혼식과 같은 아주 특별한 날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코코넛 숯불로 요리한 '통돼지 구이'입니다. 돼지 머리에서 꼬리까지 긴 쇠 꼬창이를 끼워 거의 반 나절을 기름기가 다 빠져서 껍질이 바삭해질 정도로 숯불로 굽는 이곳의 최고급 요리입니다. 생각만 해도 먹음직스러울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저는 먹지 않습니다. 아니 못 먹겠습니다. 왜냐하면 살아 있는 돼지가 비명을 지르며 '레촌 바보이'로 되는 처참한 과정을 몇번이나 목격했기 때문에 도저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대신 코코넛 숯불로 요리한 '통닭', 즉 '레촌 마녹'을 잘 먹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크기도 적당해서 저희 부부의 한 끼 식사로 안성맞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근처 '레촌 마녹' 전문 식당에서 닭을 다듬는 못 볼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작은 양푼의 물로 수많은 닭을 빠른 속도로 다듬고, 별도의 세척 과정이 없이 바로 굽기 시작하여 판매하는 과정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 날부터 레촌 마녹도 저의 메뉴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굽는 요리가 아니면, 이곳에 방식대로 양념하고, 조리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이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음식이 맛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곳 대부분의 음식은 소금과 간장으로 진하게 간을 맞추고 난 다음, 강력한 '조미료'를 사용하여 맛을 내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나서는 반드시 목이 타는 듯한 심한 갈증을 겪게 됩니다. 강한 '화학 조미료'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혀와 목젖이 감각을 잃을 정도입니다. 현지 식당에 가면, 테이블 위에 소금과 후추외에도 '조미료'가 별도로 놓여 있을 정도로, 음식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이 강력한 조미료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 보다는 짜지 않고, 비교적 조미료가 덜 들어간 음식을 주문하는 것이 습관화 되었고, 마침내 가능하면 집에서 식사 하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 하는 식사입니다. 저희 디고스 예일 교회에서도 주일 예배 후에 온 교우들이 함께 친교 음식을 나눕니다. 밥과 함께 쉽게 먹을 수 있는 반찬이나 국 종류로 친교 음식을 준비 하는데,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기다리는 시간임이 분명합니다. 대부분 체격이 왜소하지만, 식사량은 저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밥은 언제나 넉넉하게 준비 해야만 합니다. 모두들 즐겁고 푸짐하게 식사하는 모습만 보아도, 흐뭇하고 배가 부를 정도 입니다. 하지만 제 웃는 얼굴과 달리 마음 속은 미묘한 갈등 가운데 머뭇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교 음식을 먹고 나면, 예배 후 집으로 돌아 가는 차 안에서 목이 타는 갈증으로 인하여 고생 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식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반찬이나 국보다 '밥' 위주의 힘겨운 (?) 식사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혀 새로운 '국'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식초와 같이 '신 맛'이 강하게 나는 '시니강'이라는 국입니다. 무, 가지, 토마토, 고추, 깡콩 (시금치와 유사한 야채), 오クラ, 호박등의 각종 야채와 '생강'을 넣고, 신맛을 내기 위하여 '칼라만시'라는 레몬류의 즙을 잔뜩 넣어 끓이는 국입니다. 새우를 넣고 끓이면 '시니강 힘뽀'이고, 돼지고기를 넣고 끓이면 '시니강 바보이'가 되는데, 생강의 강한 풍미와 함께 형용할 수 없는 신 맛의 국입니다. 시니강을 먹을 때마나, 제 아내와 말없이 얼굴을 쳐다보며, '그래도 끝까지 먹어야 한다.....'하고 서로 눈으로 다짐을 하게 하는 국입니다. 그런데 이 시니강을 먹고 나면, 다른 반찬에 비하여 비교적 갈증이 심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토마토와 각종 야채를 넣고 끓인 국이어서 그런지 어딘가 모르게 제가 좋아하는 이탈리아인 미네스트로네 (Minestrone) 와 비슷한 맛도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먹다보니까, 언제부터인지 이 시니강이 짜거나, 조미료가 강한 다른 어떤 반찬이나 국보다 훨씬 더 먹기 편한 음식이 되어, 이제는 현지 식당에서 가장 먼저 찾는 메뉴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선교 캠프에 약 20여년 이상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미국인 선교사가 계십니다. 얼굴만 미국인이지만, 생활하는 모습은 필리핀 사람보다 더한 필리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보양식이라고 할 수 있는 '발룻 (Balut)'이라는 것이 있는데, 얼굴, 날개, 젖은 털등의 오리 모습이 그대로 있는 부화하기 직전의 오리알입니다. 세계 10대 혐오 식품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 미국인 선교사가 뼈를 오도독 씹으며, 국물까지 남기지 않고 마실 정도로 좋아하는 현지 음식입니다. 이런 고참(?) 선교사가 '시니강' 만큼은 아직도 도저히 그 맛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는 집에서 김치찌게도 아니고, 된장찌게도 아닌 '시니강'을 직접 끓여 먹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시원한 것이 물론 맛도 매우 좋지만, 덤으로 이제는 필리핀 사람이 다 되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선교를 더 힘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큰 기쁨을 주는 메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롬 14:19,20)**

 이곳은 일년 내내 더운 날씨에 삼모작을 하는 곳이라, 특별하게 추수의 계절을 지칭할 만한 때가 마땅치 않지만,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10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 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특별히 교회 건축 이후 첫번째로 드리는 추수 감사절 예배인 까닭에, 그동안 베풀어 주신 넘치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이곳에 성전을 허락해 주신 큰 축복도 놀랍고, 또한 교회에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인 한분, 한분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0년전만 하더라도,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고, 이곳 사람들을 만나리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이제 이곳에서 한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니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번 감사 예배 중에 장학 사역을 통하여 학자금을 받으면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세명이 나와서 감사의 시편을 암송하며 온 몸으로도 감사를 표현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남학생의 이름은 '이킹'이고, 다른 두 여학생의 이름은 '진'과 '친리'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세 명의 학생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변화를 경험한 학생들이어서, 그들의 감사의 고백을 듣는 감회가 새롭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킹'은 금년 초 교회 건축이 거의 끝날 즈음에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처음으로 출

석을 했었습니다. 이킹의 아버지는 교회 건축 당시 작업자로서 성실히 일을 했던 사람인데, 저희들이 진행하는 대학생 학원 사역을 눈여겨 보고 있다가, 교회 건축이 끝날 즈음에 자신의 아들을 간절히 부탁한다고 교회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처음 본 '이킹'의 얼굴은 여느 학생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불만과 분노가 가득 찬 얼굴로서, 어린 학생의 얼굴이 저렇게도 험악하게 생길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심상치 않았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고, 물어 보는 말에 들릴까 말까 하는 목소리로 억지로 성의없이 대답을 하는 것이 전부 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부모님을 따라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고, 비록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성경 공부에 참석을 하더니, 또래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교회에 있는 '드림'을 배우는데 관심을 보이고, 예배후에 의자 정리도 도와 주고, 지금은 매주 토요일에 교회에 나와 주일 예배를 위해 청소를 전담하는 성실한 교회의 일꾼으로 성장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학사역을 통하여 대학에 입학해서 컴퓨터를 전공하는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일년도 안되는 사이에 인상이 완전히 바뀌어서,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선한 청년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또한 '진'과 '친리'도 금년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큰 은혜에 감사하며 이렇게 모두 함께 씩씩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행복'과 가장 가까운 단어는 풍요가 아니라 '감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 3:15)**



### 기도 제목

1. 디고스 예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2. 장학생들과 장학 사역을 위하여
3.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후원을 위하여
4. 자녀들의 가정과 직장 and 학업을 위하여
5. 성령 충만, 안전, 건강을 위하여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사역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금을 보내 주실 때는 Check를 **Wycliffe Bible Translators** 앞으로 해 주시고,  
Check Memo에 "**for Inho & Yeonji Park (#215049)**" 라고 기입 하신 후,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시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정말 큰 힘이 되겠습니다.

**Wycliffe**  **Wycliffe Bible Translators**  
P.O. Box 628200  
Orlando, FL 32862-8200

